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기후사업분야 참여 전략

2026년



GGGI 개요

ABOUT US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에서 조약에 기반하여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이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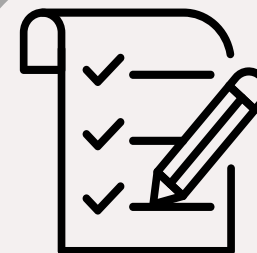


OUR VISION

저탄소 경제와 기후
회복력을 갖춘, 견고하고
포용적인 혁신 성장 사회

OUR MISSION

GGGI는 회원국의 경제
체제를 녹색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합니다



OUR POSITION

회원국 및 협력국 정부
내에 상주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정책 자문 및
개발 파트너

글로벌 회원국 및 사업대상국 현황

- 본부: 대한민국 서울
- 거버넌스: 현재 55개 회원국 보유
- 글로벌 네트워크: 전세계 57개국 내
녹색성장 사업 전개
- 핵심 가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녹색성장 모델 확산



GGGI 사업실행 모델

■ 현지 밀착형 상주 모델

- 회원국 및 파트너 정부 부처 내 상주하는 독보적인 운영 체계, 즉, 타 국제기구와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회원국 정부의 신뢰를 받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
 - 단순히 외부에서 조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 내부의 일원으로서 ▲녹색성장 정책 설계 ▲기후 금융 자금 유치 ▲현지 프로젝트 실행 ▲전문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기술 지원을 제공
- ▶ 개도국이 녹색성장이라는 실질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GGGI만의 핵심 동력

녹색 영향 평가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성 진단 부문별 녹색 영향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거시 경제 영향 평가

부문·세부부문별 전략 및 계획 수립



부문·세부 부문별 투자 계획 수립 및 선정 비용 및 투자 요구사항 분석 정책 및 제도 분석

설계, 금융지원 및 실행



사업 및 정책 준비 최적의 금융 구조와 자금 조달 방안 마련 현장에 적용 및 운영

GGGI 최근 성과



□ 포트폴리오 성장 및 다각화

- 총 90건의 협약(Agreement) 체결
- 1억 2,900만 달러(약 1,700억 원)의 수익 창출

EU(유럽연합) 협력 확대

유럽연합과 7개의
신규 협약을 통해
총 4,660만 달러
규모의 사업 확보

공여 파트너 다각화 - 지방정부

**뉴프런티어그룹(N
FG)*** 출범 (포항시
제1호 회원으로
가입)

공여 파트너 다각화 - 자선재단

어린이투자재단
(CIFF), 아프리카
기후재단(ACF) 등
자선 단체들과
협약 체결

GEF(지구환경기금) 협력 확대

GEF와 9개의 신규
협약을 통해 총
3,210만 달러
규모의 자원 확보

주요 전략 방식 및 사례

□ KGNDTF 개요 및 전략적 목적

- 한국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GGGI 내에서 한국의 '녹색 뉴딜' 경험을 전 세계 개도국에 전파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 (사업 기간 2022-2030년)

혁신 모델 확산

한국의 스마트 시티, e-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모델
글로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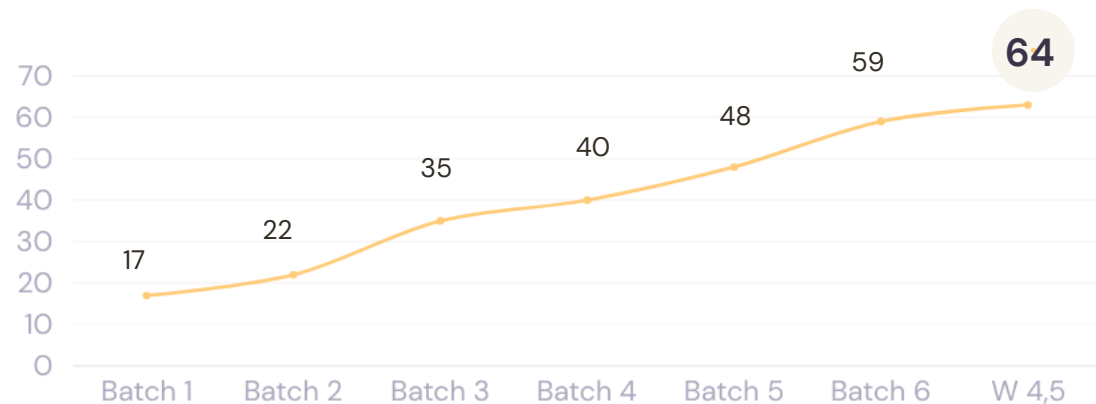
민간 투자 유치

개도국 기후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산하여 한국 및
글로벌 자본 유치 유도

정책 파트너십

한국 유관 기관과 개도국 정부
간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Batch 단위별 KGNDTF 사업 수 (누적)



승인 사업 수 (누적)

64 건



사업 예산 배정액

USD 2,250만



향후 계획

다양한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협업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하반기 GGGWeek (10월 예정) 기간에 회원국과 우리 기업 기관을 1:1로 매칭하는 등 향후 국내 기업 및 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KGNDTF 혁신 사례(1) 인도 600 MW급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마디아프라데시주 옴카레슈와르 댐 600MW급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과제: 인도는 2030년까지 500GW 규모 재생에너지 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가용 부지 부족
접근방식: 지상 태양광의 부지 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유휴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을 채택, 토지 보존은 물론, 수면 증발을 막아 수자원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



투자 유치

USD 3억6,600만



온실가스 감축량

1,200만 tCO₂



녹색 일자리 창출

427개 일자리

(개요)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옴카레슈와르(Omkareshwar) 댐에 설치된 600MW급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는 인도의 재생에너지 용량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3~35% 감축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GGGI 역할) GGGI는 핵심 자문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의 기술적 설계와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허가 승인을 확보함으로써 재무적 타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용 가능한 확장 표준 모델을 수립한 것으로, 기술 전문성, 이해관계자 협력, 정책 조율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실질적인 경험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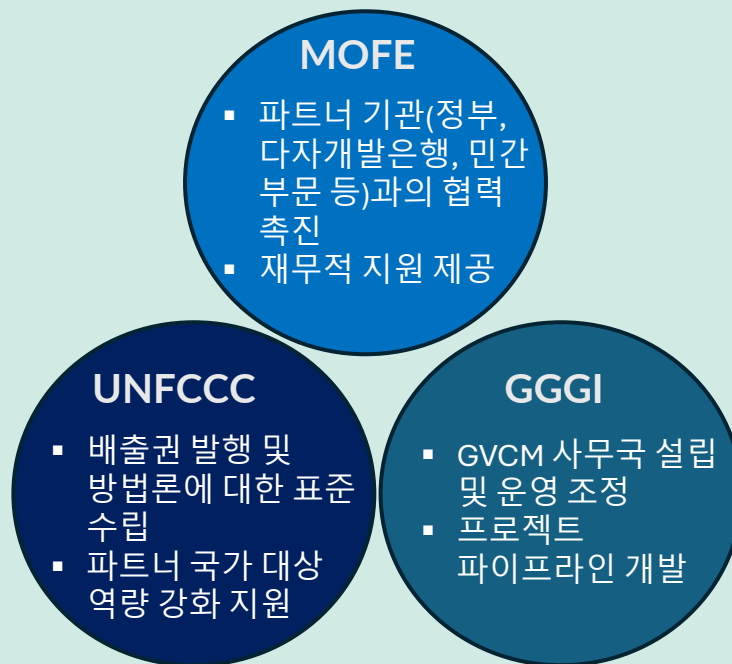
□ GVCM(Global 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 GVCM은 파리협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다자간 탄소시장 프레임워크로, 자발적 시장의 유연성과 파리협정 크레디팅 메커니즘(PACM)의 신뢰성을 결합하여 국가 간 탄소 배출권 발행 및 거래의 무결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설계되었다.

핵심 요소

- 높은 신뢰성의 표준화된 기준 (파리협정 제6조와의 정합성)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배출권 발행
- 다자간 거버넌스 체계
- 민관 협력 기반의 하이브리드 자발적 시장
- 글로벌 탄소시장 내 원활한(seamless) 거래 지원

운영 체계



주요 특징

- 공공 및 민간 주체의 자발적 참여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법론 및 MRV(측정·보고·검증) 시스템
- 승인된 배출권 이전을 위한 파리협정 제6조와의 호환성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적격 배출권의 ITMO 전환
- 투명하고 무결성 중심의 거버넌스
- K-GX 정책과 연계한 이행*

*한국형 녹색전환(K-GX) 이니셔티브는 녹색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국가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 **인도네시아-노르웨이 (2025년 6월):** 에너지 구조 개편, 즉, 석탄발전 조기 폐쇄 및 대규모 태양광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
- **잠비아-노르웨이 (2026년 1월):** NACA 펀드를 통해 탄소발전차액 지원제도(CFIP) 도입을 위한 MOPA(감축결과 구매계약 체결. 잠비아 전력망에 300MW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10년간 약 3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함.
- **파키스탄-노르웨이 (2026년 4월):** 파키스탄 정부와 노르웨이 기후투자펀드(KLP) 간의 업무협약으로 파키스탄 최초의 파리협정 제6조 기반 탄소 거래 공식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 파키스탄 내 재생에너지 및 기후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탄소 배출권을 노르웨이가 구매하는 경로를 마련하여, 대규모 기후 금융의 유입을 가속화함.



ROA16 | AKCF | 8 Countries | 2024-2027 | USD 20M

ASEAN-Korea Cooperation for Methane Mitigation

A regional project officially endorsed by the ASEAN Secretariat. Methane MRV, policy frameworks, and project financing across agriculture, waste, and energy sectors.

Impact: Asia's largest regional methane reduction program targeting 1,320+ direct beneficiaries; USD 5M channeled into methane reduction projects per country; and 1.2M indirect beneficiaries through improved wastewater, landfill, and rice cultivation practices.

T1. Just and Inclusive Energy Transition

T3. Sustainable Agri-Food Systems

P1

P2

P3

P4



ROA25 | KDB/GCF | 5 Countries | 2025-2030 | USD 11M

Climate Technopreneurship Programme

USD 104.5M investment by GCF in the collaborative R&DB program with Korea Development Bank (KDB). Incubation & acceleration, JV creation, technology transfer and investment.

Impact: Asia's first climate tech transfer fund—supporting 40+ climate tech firms, delivering 1.6 MtCO₂e reductions and 2.3M beneficiaries.

T4. Green, Resilient and Circular Cities and Infrastructure

P2

P4



Climate Technopreneurship Programme (2025-2030)

Government policy + ecosystem building + direct linkage to an actual fund

5-year platform

1 Acceleration → Fund matching

NH

Global deal sourcing

Mature climate-tech companies seeking investment, JV or licensing

GGGI

Pipeline in 5 countries

KH Cambodia ID Indonesia LA Lao
PH Philippines VN Viet Nam PDR

3 open-call cohorts · 185 accelerated · 78 shortlisted

0 2 Ecosystem & enabling environment

Ecosystem development

Networking sessions across startups, corporates, accelerators, VC / PE, universities and government

Policy support

Identifying regulatory barriers and advising on enabling conditions for climate technology investment and transfer

MATCHING Global pipeline meets country pipeline



USD 200M

Fund managed by NH, a private GP



아시아·태평양: 기후 취약국을 위한 혁신적 정책 수립과 시장 개척

□ 아시아 (Asia) - 녹색 금융 시장 활성화 및 기후 기술 이전

- **캄보디아 최초 파리협정 제6조 사업 승인(2025년 7월):** 한국 기업 주도의 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통해 10년간 68만 톤 감축 및 한국 NDC 달성 기여(40만 톤 ITMO 이전)
- 캄보디아(5,000만 달러, 태양광) 및 네팔(3,600만 달러, 수력 및 인프라) 최초의 **녹색 채권 발행**을 지원하여 민간 자본 유치 모델 구축
- **아시아 최초의 기후기술이전 펀드**를 통해 40개 이상의 기업 지원 및 16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

□ 태평양(Pacific) - 기후 위기 대응의 글로벌 표준 수립

- 바누아투에서 **세계 최초로 독립적인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정책**을 수립하여 기후 취약국을 위한 글로벌 모델 제시
- 피지, 통가, 사모아 등 4개국에서 탄소 중립과 적응 경로를 통합한 NDC 3.0 수립 및 COP30 발표 지원
- 솔로몬 제도가 5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태평양 지역 협력 기반 확대

아프리카·중동·라틴아메리카 지역: 현지 밀착형 자문을 통한 대규모 녹색 투자 확대

□ 아프리카 (Africa) - 기후 대응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에티오피아 정부의 핵심 기후 자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MOU 체결 및 19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 우간다 기후금융 유닛(CFU) 설립, 녹색 채권 발행 등 아프리카 주도의 금융 이니셔티브 선도

□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 녹색 투자 금융의 비약적 성장

- 2023년까지 전무했던 지역 내 녹색 투자 유치를 2025년 기준 누적 3억 달러(약 4,000억 원)까지 끌어올림
- 체계적인 투자 접근법(MIA)을 통해 12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투자 파이프라인 확보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LAC) -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 변화

- 콜롬비아의 '에너지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 1,680만 유로의 자원 확보. 대규모 발전 중심에서 지역 공동체 소유의 재생에너지 체계로 전환 유도

감사합니다